조선대학교 소식

Vol. 261 2022. 하반기

Vol. 261 2022. 하반기

발행인 민영돈
발행월 2023. 2.
발행처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 홍보팀(062-230-6490)
기획·편집 전은재 / **사진** 손은석 / **디자인** 김지영

황중환 교수 作
Wings 날개, 163x130cm, Acrylic & Gouache, 2023

삶의 무게는 때로 날개가 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면 날개를 펼치고 창공을 자유롭게 유영하듯 평안한 시간이 옵니다.
작품을 감상하는 모든 분들께 자유롭고 너그러우며 평화로운 마음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CONTENTS

06

새해 메시지

민영돈 총장

44

CSU 새얼굴

신임 교수 소개

08

CSU FOCUS

사학혁신지원사업 통한
공영형 사립대 발판 마련

THE 세계대학 순위 첫 진입…국내 25위

박설현 교수 연구팀,
2025년 누리호에 큐브위성 탑재

유호진 교수 연구팀,
손상된 DNA 복구하는 세포 내 방어시스템 규명

조태오 교수,
'종묘생산 없는 미역 양식법' 개발

22

CSU STORY

제36대 총학생회 '바로'

동아시아 재난의 기억, 서사, 치유:
재난인문학의 정립

드라마, 영화부터 예능까지...
촬영지로 뜨고 있는 캠퍼스

Colorful K-MOOC,
당신의 미래를 그려보세요.

34

CSU NEWS

해외취업연수사업 A등급.
100% 취업 달성 성과

의과대학 검도동아리
조선의검회
전국검도대회 종합우승

2022
CSU 대학혁신 성과포럼 성료

48

발전기금 STORY

김영욱 LX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기부스토리

박종호 (주)제이제이홀딩스 대표

조선대학교 어린이집

이영훈 광주순환도로투자(주) 대표이사

발전기금 약정자 (2022.08. ~ 2023. 01.)

54

병원 소식

장례식장 부지에 새병원 건립

광주광역시와 함께
중동지역 의료관광시장 개척 '박차'

의료칼럼_
조선대병원 피부과 나찬호 교수

치과병원, 이난영 교수
제23대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장 취임

CONTENTS

지혜로운 토끼처럼 도약하는 한 해 되길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가 밝은 지도 두 달여가 지났습니다.

예로부터 토끼는 전래동화와 우화에 자주 등장하며 지혜롭고 꾀가 많은 동물로 묘사돼 우리에게 친근합니다.

특히 고전문학인 '별주부전'에서 토끼는 자라의 꾐에 빠져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 속에서도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슬기롭게 벗어났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경제위기, 기후위기, 저출산 등 다양한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매년 신입생 충원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입학 이후에도 재학생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준비해 어려운 일을 면한다'는 뜻을 가진 교토삼굴(狡兔三窟)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토끼는 땅을 팔 때 3개의 구멍을 만드는데 1개가 막히면 나머지 두 곳으로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토끼의 기민함과 영특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러한 토끼의 기민함과 영특함을 무기삼아 대학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와 기업 현장 중심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취·창업률 증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교육정책과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 대학도 ESG경영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집중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동반성장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도 앞장 서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대학에만 주어지는 값진 선물입니다. 건학 100년의 찬란한 금자탑은 개교 7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열정적인 노력과 헌신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별주부전'에서 기지를 발휘했던, 작지만 날쌔고 영민한 토끼처럼 2023년 계묘년 슬기롭고 희망찬 한 해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대학에만 주어지는 값진 선물입니다.
건학 100년의 찬란한 금자탑은 개교 7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열정적인 노력과 헌신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사학혁신지원사업 통한

공영형 사립대 발판 마련

지난해 법인 정관개정안 의결

이사 중임 2회로 제한…대학 사유화 방지

조선대학교는 1946년 설립된 국내 최초 민립대학이다.

조선대는 설립 당시 광주·전남 지역민 7만2000여 명이 쌀값 두 말에 해당하는 100원짜리 설립동지회원권을 사는 등 대학 설립에 힘을 보태 만들어졌다. 이들이 모여 만든 설립동지회는 '민족국가 수립에 기여할 지역사회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설립 이념을 기반으로 민주시민과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어려움도 있었다. 제1대 총장으로 선출된 박철웅은 조선대학교 설립동지회를 부정하며 위에 언급된 7만2000여 명의 기부 내역을 은폐하고 개인 설립을 주장하며 사실상 학교를 사유화했다.

이에 박철웅 전 총장(1999년 사망) 일가를 퇴출시키고자 학내 민주화 투쟁이 일어났고 학생들은 13일간 장기 농성을 거쳐 1988년 박 전 총장 일가를 쫓아냈다.

이후 조선대는 30년간 임시(관선) 이사와 정이사 체제를 반복하면서 학생들의 발전을 모색하고 지역성장을 이끌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왔다. 올해 개교 77주년을 맞이하는 조선대는 '지역과 함께 100년, 학생과 함께 미래로!'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속적인 대학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끌고 학생들에게는 발전적인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등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지역 명문사학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학혁신지원사업 수행 대학'에 선정됐다. 사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학혁신 성과를 발굴해 다른 대학으로 확산시키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며 이를 통해 조선대는 학교법인의 공공성을 확보, 대학 발전으로 연결해 공영형 사립대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사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과제인 설립자 친인척의 이사장 취임과 법인이사 중임 제한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을 의결하며 공영형 사립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제13차 이사회를 열고 제95차 정관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정관 개정을 통해 조선대학교는 7만2000여 설립동지회원의 뜻을 계승한 민립대학이라는 정체성을 명문화했다. 또 설립자나 그 친인척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제한했고, 법인이사 중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해 이사회 사유화를 방지했다.

조선대 사학혁신지원사업단(단장 정세종 교수)은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 시민단체와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 정관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된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 정관 제1조(목적)에 7만2천여 설립동지회원들의 뜻을 이어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조선대학교가 민립대학이라는 설립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둘째, 민립대학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설립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및 친인척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제한했다.

셋째, 법인 이사의 중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함으로써 이사회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재 「사립학교법」 및 대부분의 사립대학 정관에서는 법인 이사의 중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영구적인 이사 재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사유화의 원인이 된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정세종 조선대학교 사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학교법인의 공공성과 민주성이 강화돼 조선대학교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대학 순위 첫 진입…
국내 25위

영국 타임스 고등교육 주관 2023 THE 세계 대학 순위
104개국 1799개 대학 평가, 국내 37개 대학 포함

세계 순위	국내 순위	대학명	국가	2022순위	2021순위	추이
1001-1200	20	인하대		1001-1200	801-1000	-
	21	전북대		1001-1200	1001+	-
	22	부산대		801-1000	801-1000	▼
	23	서강대		1001-1200	801-1000	-
1201-1500	24	카톨릭대		1001-1200	1001	-
	25	조선대	한국	-	-	신규
	26	충북대		1201+	1001+	-
	27	경남대		1001-1200	1001+	▼
	28	경상대		1201+	1001+	-
	29	한림대		1201+	1001+	-

조선대학교가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인 타임스고등교육이 발표한 2023 세계대학평가 순위에서 국내 25위에 올랐다.

영국의 세계적인 대학평가기관 타임스고등교육은 지난해 말 '2023 THE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했다. 이번 순위에는 104개국 1799개 대학이 포함됐으며 ▲교육 여건(30%) ▲연구 실적(30%) ▲논문 피인용도(30%) ▲국제화(7.5%) ▲산학협력 수익(2.5%) 등 5개 지표를 평가했다.

1971년 설립된 THE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대학평가기관으로 2004년부터 세계대학순위, 소규모대학순위, 아시아대학순위 등 다양한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영국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 중국 대학평가기관 상하이 랭킹 컨설턴트가 발표하는 ARWU(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와 함께 세계 3대 대학평가기관으로 불린다.

조선대는 이번 2023년도 THE 세계 대학 평가에서 국내 4년제 대학 총 37곳 중 25위를 차지했다.

THE에 따르면 조선대는 종합점수(Overall) 18.4-24.3으로 올해 새롭게 차트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대학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교육(Teaching) 17.8, 논문인용(Citations) 16.9, 연구(Research) 22.2, 산업소득(Industry Income) 81.3, 국제(International Outlook) 29.6을 기록했다.

지표분석 결과 특히 '연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대 교수 및 학생들의 우수한 연구실적이 이번 순위 선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뜻이다.

가시적인 연구성과로는 오현웅 교수(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의 큐브랩-Ⅱ 연구팀이 지방대학에서는 유일하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탑재한 '큐브 위성'을 만든 것을 들 수 있다. 이 팀은 최근 큐브 위성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또 성우석 교수(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가 운영하는 '퓨처모빌리티랩'은 도로 및 대기 환경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해 공공정보로 제공하는 무인공공정보수집차에 대한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취득(2021.9)했고 실증운행(2021.11)을 시작해 화제를 모았다.

아울러 조선대 기술지주 자회사 큐얼스(조훈 생명화학공학과 교수)는 친환경 녹조 제거기술을 개발,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건호(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교수가 단장으로 있는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뇌 노화과정을 표준화하고 MRI만으로 치매를 조기에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성훈 경제학과 교수는 SCI(Science Citation Index) 논문 게재 성과를 인정받아 국내 경제학자 랭킹 8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밖에도 조선대는 지난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소재한 비영리 교육단체인 세계대학랭킹센터(Center for World University Rankings·CWUR)가 발표한 대학 순위에서 호남권 사립대학 중 1위(세계 1193위)에 오른 바 있다.

조선대는 이번 성과를 통해 권위있는 국제 대학평가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리 대학의 대내외적 위상을 강화하고 홍보를 통해 신입생 유치 및 대학 구성원들의 자긍심 고취에 힘쓸 예정이다.

민영돈 총장은 "2023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기쁘다"며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을 둘러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을 위해 학생과 교수, 직원 등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뜻을 모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25위 등극을 발판삼아 창조적 정신으로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성있는 인재를 기르고 교육의 장과 사회를 연결하는 생산교육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봉사하는 전문인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며 "앞으로도 교육, 연구 등 각 분야의 활동들을 지원하며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선대 무인공공정보수집차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취득_
왼쪽부터 정진섭, 이환홍 학생(기계시스템미래자동차공학부 4학년), 강용문 책임연구원(조인트리), 성우석 교수(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

조선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큐얼스 연구모습〈왼쪽〉과 ㈜큐얼스가 개발한 친환경 유해조류제거제 GreenTD

기계공학과 박설현 교수 연구팀

대학 자체 개발 큐브위성, 2025년 누리호 4차 발사체 탑재

"우리나라의 뉴 스페이스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시점에 우리 대학이 개발한 위성을 누리호에 탑재하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지난해 여름 전국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2) 발사로 들썩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누리호 안에 탑재된 큐브위성이었다. 조선대학교는 지역대학에서는 유일하게 큐브위성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큐브위성은 한국형 최초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향했다.

조선대가 지난해에 이어 오는 2025년 예정된 누리호 발사에 또 다시 큐브위성을 싣게 됐다.

조선대 기계공학과 박설현 교수가 이끄는 조선대팀 'Cosmic Light house Keeper'가 '2022년 큐브위성 경연대회'에서 최종 선정돼 오는 2025년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 큐브위성을 우주로 보내게 된 것이다.

누리호 4차 발사는 핵심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돼 개발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뉴 스페이스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교수팀의 위성 탑재가 남다른 의미를 갖는 이유다. 특히 조선대가 지방대 최초로 2021년 3월과 2022년 6월 각각 초소형위성을 제작·발사하고 우주항공분야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것은 지역 우주 산업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주산업 생태계에 크게 일조한다는 의미가 있다.

김동주·이명규 박사과정생, 이재원 석사과정생, 오승준 학부과정생, 박설현 지도교수, 김준연 학부과정생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최근 박 교수에게서
이야기를
들어봤다.

박 교수는 먼저 누리호 4차 발사 탑재 큐브위성으로 선정된 소감을 밝혔다.

"지난 여름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고흥지역이 이번 정부의 공약 사항으로 추진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로 최종 지정되어 우리 지역이 우주 산업의 주요 요충지역으로 발돋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자체적으로 제작한 큐브위성을 우주로 보내게 돼 매우 기쁩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핵심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개발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뉴 스페이스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시점에 우리 대학이 개발한 위성을 누리호에 탑재하게 되어 의미가 남다릅니다."

박설현 교수가 김준연 학부과정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이번에 4차 누리호 발사에 실을 큐브위성 제작팀으로 선정한 곳은 총 6개다. 고급위성분야의 조선대팀(팀명 Cosmic Light house Keeper)과 서울대팀(팀명 SNUGLITE), 기초위성분야의 세종대팀(팀명 SUNRISE), 인하대팀(팀명 InCuPion), KAIST팀(팀명 GBSAT, K-HERO)으로 이들은 우주에서의 과학임무와 기술검증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선대팀은 'STEPCUBELab-II'(지도교수 오현웅)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서울대와 함께 '고급위성' 제작팀으로 최종 선정, 또다시 우리 대학이 큐브위성을 발사할 기회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고급위성팀에 선정되면 항우연으로부터 향후 2년간 7억5000만원의 개발비용과 함께 위성 설계 검토, 우주환경시험 등 큐브위성 제작에 필요한 각종 기술을 지원받게 되며, 그 위성도 2025년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 궤도에 투입될 예정이다.

박 교수는 이번 위성을 통해 뉴 스페이스(신 우주)라는 우주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 기술인 재사용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우주산업은 미국의 space-X로 대표되는 뉴 스페이스"라며 "상업적 우주산업 수요에 대응해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 개발을 촉진하고자 정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구 우주)가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뉴 스페이스 패러다임의 핵심기술은 재사용인데 "제작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기존 위성 제작방식으로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상업적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제작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기존 위성 제작방식으로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상업적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죠. 저희팀은 지난 2021년 3월 러시아 소유즈 발사체를 이용해 KMSL(Korea Microgravity Science Laboratory)큐브위성을 발사하고 궤도 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비행 소프트웨어와 위성 핵심 부품을 재사용해 큐브 위성을 단기간에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이번 개발을 통해 검증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우주 레이저 광통신단말 틀을 국산화하고 궤도 성능 검증과 함께 교육 분야의 임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우주기술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LED로 구현된 위성(인공 별)의 비행 궤적 관찰과 개방형 위성 통신기능(Transponder)을 이용해 우주기술 체험 기회를 공유하는 교육 임무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우주에 대한 학생들의 열망을 살릴 수 있는 '감정적 연결선'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의 천문대와 연계하여 교육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형 교육 임무 수행을 통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우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번 위성 발사를 통해 바라는 바도 언급했다.

그는 "뉴 스페이스 산업 분야의 인력 수급 문제는 산업체를 뛰어넘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전라남도와 같이 우주항공 산업의 육성을 희망하고 있지만, 관련 산업의 기반 및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전문 인력확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CPSat의 개발기회가 전남의 발사체 클러스터라고 하는 큰 호재와 맞물려 우리 지역의 우주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과대학 유호진 교수 연구팀

‘손상된 DNA 복구’

세포 내 방어시스템 규명…
악성 암 치료 실마리

악성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손상된 DNA의 복구 활성을 조절하는 세포 내 방어 시스템의 원리가 밝혀졌다.

의과대학 유호진 교수 연구팀이 세포 내 씨티아이피(CtIP) 단백질이 손상된 DNA의 말단을 정확하게 절제해 DNA 복구를 촉진하고 DNA의 집합체인 게놈을 안정화하는 원리를 규명한 것이다.

염색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DNA 복구시스템의 원리 규명은 악성암 극복의 핵심 열쇠로 꼽힌다. 세포가 분열 과정에서 발생한 DNA 손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유전자 정보를 딸 세포에 물려주면, 다양한 돌연변이를 지닌 암세포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유호진 교수는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CtIP는 손상된 DNA 말단을 절제해 DNA 복구를 촉진하고 염색체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데 CtIP가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하여 손상된 DNA 말단을 정교하게 절단, DNA 복구를 촉진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며 “그 정확한 조절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연구를 시작 했다”고 밝혔다.

유 교수 연구팀은 DNA 복구 조절 실험을 통해 DNA가 손상되면 CtIP 단백질이 세포 내 효소 단백질인 ‘시아2’(SIAH2)에 의해 변형된 뒤 손상된 DNA 말단을 정교하게 처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경우 돌연변이 발생 없이 DNA를 복구시켜 염색체를 안정시킨다.

DNA 손상이 심하면 DNA 복제가 붕괴되는 복제 스트레스가 발생해 악성 암의 원인이 된다.

유 교수는 “연구 중 CtIP의 중요한 기능인 손상된 DNA 말단을 절제해 염색체 안전성을 유지하는 조절인자를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연구 중 마주했던 장애요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CtIP 결합 단백질을 탐색하는 과정 중에 유비퀴틴을 통해 단백질을 변형하여 단백질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SIAH2를 발견하고, CtIP가 SIAH2에 의하여 유비퀴틴이 발생, CtIP의 손상된 DNA의 말단을 정교하게 절제해 DNA 복구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기존에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었던 DNA 손상 후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손상된 DNA가 정상화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염색체 안정성을 유지하는 세포내 방어시스템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CtIP의 유비퀴틴과 SIAH2의 활성을 조절하는 물질개발을 통하여 악성암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후속 연구를 통해 치료제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기초연구지원사업(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생명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뉴클레익 액시드 리서치(Nucleic Acids Research, IF: 19.160)’에 최근 게재됐다.

한편 서울대학교에서 약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에모리대학교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일했던 유호진 교수는 1994년부터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암악성화돌연변이 연구센터(MRC) 사업단장, 한국연구재단 기초의학분야 책임전문위원, 대한약리학회 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

* 씨티아이피(CtIP): 손상된 DNA 말단을 절제해 DNA 복구를 촉진하고 염색체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 시아투(SIAH2): 단백질 유비퀴틴을 촉진해 단백질 변형을 유발하는 세포내효소 단백질
* 유비퀴틴(Ubiquitin): 단백질의 분해를 촉진하거나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하기 위해 세포의 다른 단백질에 결합하는 7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

조태오 교수, ‘종묘생산 없는 미역 양식법’ 개발

품종의 안정화, 육상양식 및 상시양식 가능성 열어

종묘를 생산하는 과정 없이 미역을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조선대학교 조태오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교수는 종묘생산 과정 없는 미역 양식법을 개발, 품종의 안정화, 육상양식 및 상시양식의 가능성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미역은 철분, 칼슘과 아이오딘 함유량이 많아 오래전부터 산후조리용 음식과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다양한 기능성 식의약품의 원료로 활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한류 확산으로 미역을 활용한 음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에서도 해조류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전환되면서 미역이 영양식품 및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미역은 2014년 이후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했고, 우리나라는 세계 제2위 미역 생산국이자 제1위 수출국 (2018년 통계자료)으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역은 여름의 작은 사상형의 배우자체로부터 배우자 교배를 통해 겨울의 엽상형의 포자체를 양식하여 대량생산을 하게 된다. 따라서, 겨울의 엽상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름 사상형의 배우자 교배가 이루어지는 종묘생산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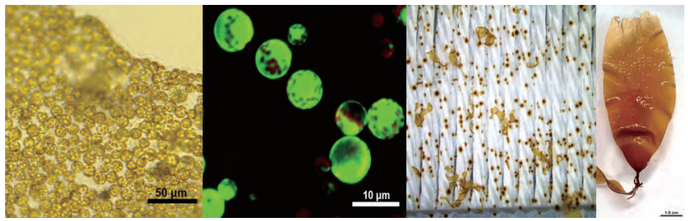
하지만 조 교수는 최근 미역의 원형질체 배양연구를 통해 종묘생산 과정 없이 손쉽게 엽상형에서 직접 엽상형을 생산할 수 있는 양식법을 개발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용화되어 있는 효소들의 조합을 통해 미역 엽체의 세포벽을 제거하여 원형질체를 형성하는 제1단계와 이렇게 형성된 각 원형질체들이 재생분화하는 제2단계로 구분된다.

특히, 제2단계인 원형질체 재생분화 단계에서는 전분화능을 가진 캘루스(PDAF) 덩어리가 형성되어 장기보존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장기보존된 캘루스(PDAF) 덩어리에 특별한 빛의 파장 자극을 가하면 정상적인 미역 엽체들로 발달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미역 원형질체 배양법을 통해 0.5 x 0.5 cm의 작은 엽체로부터 200만개 이상의 원형질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미역 양식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미역 양식법 개발은 최근 국제 유수 과학저널의 논문과 특허로 등록, 발표됐다.

원형질체 미역 양식법은 향후 미역 품종개발, 효율적인 양식공정, 안전한 먹거리제공 등에 직접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형질형성 및 재생을 통한 미역의 발달과정 〈조태오 교수 제공〉

제36대 총학생회 '바로'

총학생회장 하현일, 부총학생회장 김하은 학생

2023학년도는 신뢰 회복 위한 첫걸음 단계

올바로 곧바로 청렴한 학생회 만들 것

최근 2023학년도 총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이 투표를 거쳐 당선, 마침내 총학생회가 꾸려졌다. 회장은 하현일(글로벌인문대학 4학년)학생이며 부회장은 김하은(사범대학 3학년) 학생이다.

이들은 올바로 생각하고 곧바로 행동한다는 뜻을 담은 '바로'를 팀명으로 내걸고 연장투표를 거쳐 최종 당선됐다.

이들에게서 당선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총학 선거 출마 계기는?

A. 학생회 활동을 통해 학우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꼈다. 학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뢰 받는 학생회를 만들고 싶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Q. 연장투표까지 거쳐 당선됐다. 소감은?

A. 한 달간의 연장 투표 기간 동안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한 표 내어주신 학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한 해 동안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우들의 의견을 대학 본부에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청렴하고 떳떳한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다. 학생회장이라는 자리는 권위나 상징적인 자리가 아니라 학우들의 대변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해를 잘 이끌어갈 계획이다.

Q. '바로' 뜻은?

A. 올바로 생각하고 곧바로 행동한다는 뜻이다. 학우들의 입장에서 올바로 생각하고 학생회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곧바로 행동하겠다.

Q. 회장, 부회장의 호흡은 어떤지?

A.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정확한 업무 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시간 활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의기투합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Q. 가장 중점을 두고 이루어 나갈 정책은?

A.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학우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우선해 추진할 것이다. 또한 학우들이 믿을 수 있는 투명한 학생회비 집행 및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학우들에게 다가가겠다.

Q. 정책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나?

A. 수년 동안 학우들이 겪어온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정책을 수립했다. 이를 위한 아이디어는 주로 학우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는 것 같다.

Q. 학교와,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할 생각인지?

A. 대학 홈페이지, 총학생회 홈페이지,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학 SNS 및 오픈채팅을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만들어나가는 학교를 만들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한 말씀 부탁한다.

A. 2023년도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앞으로 학생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첫걸음을 내딛는 단계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학생회가 학우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학생회가 되겠다. 진정 학우들을 위한 학생회가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고, 학우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총학생회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좋은 말은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쓴 소리는 더욱 귀담아듣는 총학생회가 되겠다.

동아시아 재난의 기억, 서사, 치유

재난인문학의 정립

HK+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 같은 해 12월 광주에 사흘간 최고 40㎝의 눈이 내린 폭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뭄…

이러한 재난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일까.

우리 사회는 홍수나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비롯해 전쟁과 학살, 각종 대형사고 등의 사회적 재난에 대해 개인, 공동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 가뭄, 폭설 등 재난의 종류도 다양하다. 이와 같은 재난의 역사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김선희 소프라노가 호남예술열전Ⅱ 시간에 '정율성과 그의 음악세계'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지난 2019년 5월 '동아시아 재난의 기억, 서사, 치유: 재난인문학의 정립'이라는 연구 아젠다를 내걸고 출발한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단장 강희숙·이하 재난인문사업단)은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재난에 대해 인문학적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갖고자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재난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하는 일은 무엇일까?

재난인문사업단은 자연재해와 전쟁, 산업재해 등 예기치 않은 재난 상황에 직면하는 현대사회를 인문학적으로 접근해 연구하는 '재난인문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자연적, 사회적 재난에 대해 살펴보고 '재난사회'에서의 삶과 연대 가능성을 모색한다.

지난 4년간 재난인문사업단을 이끌어 온 강희숙 단장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강희숙 단장

강 단장은 "지금까지 재난에 대한 접근은 자연과학 또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만 이루어져 왔다"며 "이러한 가운데 재난인문사업단은 재난을 인문학적으로 바라보고 성찰하면서 '재난인문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학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가뭄, 폭우 등 흔히 재난이라고 알고 있는 기후위기 등은 인문학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어요. 인문학은 자연을 다루는 자연과학과 대립되는 영역으로서 인간의 가치탐구와 문화 등을 연구했죠. 하지만 재난이 빈번하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은 재난의 역사를 통해 재난의 여지를 감지하고 사유·성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재난인문학의 역할이죠."

강 단장은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재난에 처해있다고 말한다.

지난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부터 학동 철거건물붕괴 사고, 화정아이파크 붕괴, 이태원 압사 사고를 비롯해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폭설, 폭염 등을 거쳐오면서 우리는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사유하고 진단하기보다는 결과를 수습하는 데에 급급했다.

재난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성찰이 없었고 재난이 던진 물음들에 대해 깊게 숙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난이 일상이 된 지금, 재난인문사업단은 지금까지의 재난에서 나아가 자연, 인간, 사회, 국가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광주, 대한민국을 넘어 동아시아, 세계로 시공간적 범위를 확장해 재난을 통해 새로운 사회의 밑그림과 인간학을 다시 설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강 단장은 "과거와 현재의 재난을 매개로 수평적·수직적으로 재구성되는 관계의 연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라는 공동성을 다시금 탐구하고자 한다"며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시대,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난 재난에 대한 역사적·문학적·철학적 분석과 고찰을 통해 인류가 재난과 마주해 온 방식을 시·공간적으로 아카이빙하고 분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에 대응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탐색하는 동시에 재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과 연대가 가능할지를 근본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임무"라고 강조했다.

'재난인문학' 연구는 1단계 '재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2단계 '재난인문학의 정립'으로 나눠 진행중이다. 지난 2019년부터 3년간은 '기록기억', '정체성', '트라우마 심성'을 주제어로 삼아 1단계 연구를 진행했다.

2단계가 시작된 지난 2022년에는 '종교의례'를 주제어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기술 미디어', 내년에는 '이동 초국경'을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단계 3년 동안은 재난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면, 2단계 4년 동안은 각 국가와 사회마다 재난에 대처해 왔던 양상과 재난 이후의 변화를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재난인문사업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난 디지털 아카이브를 세계적인 수준의 동아시아 재난 연구 아카이브로 발전시킴으로써 오늘날 동아시아의 여러 사회가 공유하는 재난 문제를 함께 연구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난의 상호연관관계, 재난과 사회적 변화의 연관성, 재난을 기억하거나 극복하는 방법 등을 연구, 통합적인 재난 연구가 이뤄지는 거점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재난인문사업단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출범 첫 해부터 재난인문학 정립을 위한 워크숍과 시민교육프로그램인 재난인문학강좌, 재난인문학 포럼, CSU 기후위기아카데미를 꾸준히 열고 있다. 지난해에는 재난인문학 총서 발간, 재난현장사진 공모전, 기후위기·물 부족 문제 대응 대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특히 총 20권의 재난인문학 총서는 재난인문사업단의 3년간의 연구 성과물로서 재난인문학의 정립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현안인 물 부족 사태를 다룬 대토론회는 지역민의 관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끌어냈다.

이 중 가장 대중들의 인기를 끌었던 것은 바로 재난인문학강좌이다. 이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우크라이나-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영화 「공기살인」 원작자 소재원과 함께하는 인문학 특강', '미술로 읽는 재난' 등 국가, 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재난을 바라봤다는 점이다.

강 단장은 이 같은 활동들과 함께 앞으로 재난인문학을 교과목으로 개발, 한국 인문학 연구의 지평을 넓혀 지역사회와 미래세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 동아시아에 한정하지 않고 전 지구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해 재난인문학의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재난인문학'이 재난 속에서 찾으려 하는 인간의 삶과 가치, 인간다움의 의미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사업단은 이에 대한 답을 지역사회로 확산시키는 한편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인지를 밝혀나갈 생각입니다."

1. 문화공간 오래된숲에서 진행한 '공감과 소통의 인문학 닫힌 마음 열기'
2. 호남예술열전Ⅲ 방성춘 국악인의 강연
3. 재난인문사업단이 숲사랑물사랑환경대학과 함께 진행한 환경 생태 문화 답사
4. 토요인문학강좌 '장자에게 인간의 길을 묻다' 진행 모습
5. 제1회 재난체험수기 공모전을 통해 제작된 모음집 '팬데믹 시대를 살다'

"앗 여기가 송중기가 거닐던 곳 아니야?"

조선대학교 캠퍼스가 전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조선대 캠퍼스에서 촬영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된 가운데, 영화, 예능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이곳에서 촬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 영화부터 예능까지...
촬영지로 뜨고 있는 캠퍼스

조선대 캠퍼스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캠퍼스로 유명하다.

77년의 역사를 간직한 조선대는 근대 건축물부터 현대 건축물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건축물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본관과 의과대학 1호관은 국가등록문화재이며, '매우 큰 뜻을 품은 연못'이라는 뜻의 장지연, 본관 건물에 걸어가려면 거쳐야 하는 '108계단' 등이 명소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선대의 랜드마크(land mark)인 본관은 국가등록문화재로서 건립 당시에는 중앙 5개의 박공지붕으로 구성된 건물이었지만 몇 차례 증축을 거치면서 지금은 건물 길이가 약 370m에 이른다. 모두 19개의 박공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독특한 형태로 인해 광주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매력을 갖춘 조선대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5편의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들이 촬영됐다.

먼저 지난해 인기리에 종영한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는 본관 1층 복도와 4층 글로벌인문대학 교학팀 사무실이 등장했다.

드라마 주인공인 진도준(배우 송중기)은 극 중에서 서울대학교 법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묘사되는데 재학 시절 모습이 조선대에서 촬영돼 방영 당시 지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앞서 방영된 KBS '언니랑 쏠래?'에는 대운동장 모습이 담겼다. KBS 광주방송총국이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광주를 무대로 제작한 이 프로그램은 생활체육 분야의 여성 양궁단 창단부터 전국대회 출전까지 신생 양궁단의 빛나는 도전을 통해 양궁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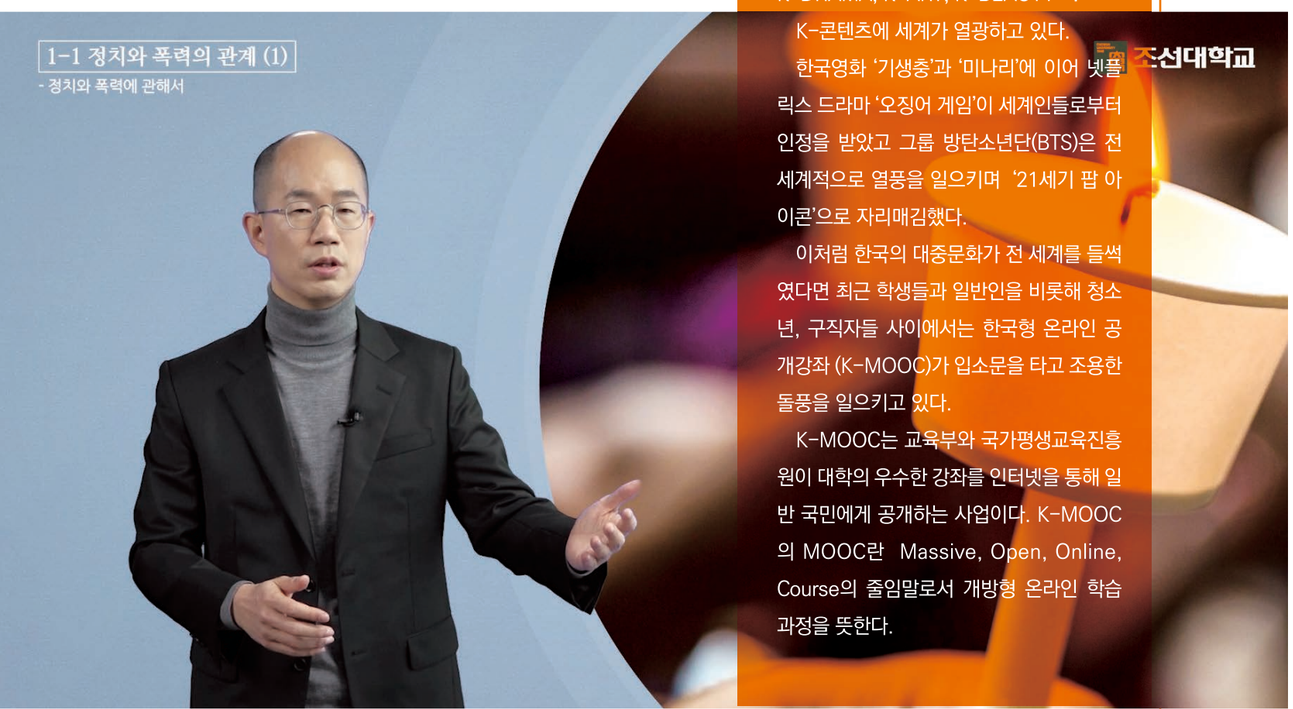
올 상반기 개봉 예정인 영화 '서울의 봄'은 본관 1~3층 복도와 중앙계단, 본관 뒤편 대피소, 계단, 창고 등에서 촬영됐다. 김성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작품에는 황정민, 정우성, 이성민, 박해준, 김성균 등이 출연한다. 1970년대 말, 대한민국 현대사를 뒤흔든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광주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수지가 출연해 눈길을 끈 넷플릭스 드라마 '이두나' 역시 중앙도서관 앞 벤치를 비롯해 중앙도서관 2·4·5층 등에서 촬영됐다. 올 여름 방영 예정인 이 작품은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하며 돌연 은퇴를 선택한 아이돌 이두나와 대학교 1학년 학생 이원준이 같은 셰어하우스에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체육대학 2·3층 복도에서 촬영된 영화도 있다. 조정석, 이선균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는 영화 '행복의 나라' 제작진은 지난해 1월 조선대를 찾았다. 영화는 추창민 감독의 작품으로서 현대사를 뒤흔든 사건 속에 휘말린 한 인물과 그를 살리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변호사의 이야기이다.

Colorful K-MOOC

당신의 미래를 그려보세요.



공진성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K-MOOC 강좌 '정치와 폭력'

K-CULTURE, K-MOVIE, K-FOOD, K-DRAMA, K-ART, K-BEAUTY….

K-콘텐츠에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

한국영화 '기생충'과 '미나리'에 이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며 '21세기 팝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를 들썩였다면 최근 학생들과 일반인을 비롯해 청소년,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가 입소문을 타고 조용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K-MOOC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대학의 우수한 강좌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사업이다. K-MOOC의 MOOC란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줄임말로서 개방형 온라인 학습 과정을 뜻한다.

K-MOOC

지난 2015년 10월 서비스 개통 이후 약 295만 명이 사이트를 방문했으며 약 26만 명이 수강을 신청했다.

전국의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출연연구기관,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공익법인 등이 참여했으며, 조선대는 '2017 K-MOOC 대학 재정지원 사업 활용 강좌'에 선정돼 지금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조선대 글로벌인문대학 최영주 교수가 개설한 '손생님! 한국수어를 부탁해요' 강좌가 예비 수어통역사와 현직 수어통역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수어 강좌는 2021년 호남권 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된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MOOC)이다. 학생 및 일반인 등 수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입문, 기초, 활용, 고급 등의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K-MOOC의 특징은 참여기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수요가 높은 우수 콘텐츠를 개발·운영하는 것이다.

K-MOOC는 강의실에 수용된 학생만이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 청강만 가능한 온라인 학습 동영상에서 시작해 현재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제출 등 양방향 학습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완성됐다.

이는 알려주려는 자와 배우려는 자를 쉽고 한층 가깝게 연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어제보다 나은 미래, 새로운 미래, 더 다채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주제별로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융·복합 분야의 강좌를 들을 수 있으며, 중분류별로는 언어·문학, 중등교육, 건축, 토목·도시, 교통·운송,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밀·에너지 강좌가 마련돼 있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 AI 인공지능, 이공계 기초과학, 교양강좌, 취업역량강화, 매치업 등을 주제로 한 강좌도 만날 수 있다.

또 한국어, 한국문화에 대해 배울수 있는 한국학,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 세계언어에 대해 다루는 언어강의 카테고리도 있다.

'손생님! 한국수어를 부탁해요' 에 앞서 지난 2020년에는 신형철 교수의 '문학사를 통해 본 인간상'이 'K-MOOC 학습과정평가인정' 과목에 선정됐으며, 조선대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개별강좌 영역 공모에 최다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조선대가 운영중인 강좌는 '생활속의 응급처치'(안영준 교수), '신뢰성공학'(곽재복 교수), '〈삼자경三字經〉 인문학-세 글자로 읽는 중국문화'(한예원 교수), '유튜브와 SNS에서 저작권'(한지영 교수), '추리소설의 인문학적 탐구'(장경현 교수) 등이다.

아울러 '차이나 히스토리'(이영란 교수), '공동주택 분쟁 이해'(강혁신 교수) 등 다양한 주제의 강좌도 만날 수 있다.

최근 진행된 K-MOOC 시연회 모습

김춘성 교수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교육부장관상

LINC 3.0 사업단장인 치과대학 김춘성 교수가 2022년도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 3.0 동계포럼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LINC 3.0 사업단장으로서 보직임무를 수행하면서 산학협력, 특히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해 대학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교수는 "큰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대학 기술 사업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간호학과 김진희 교수
교육부장관상 수상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단장인 간호학과 김진희 교수가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을 통한 교육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이 표창장은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 헌신적으로 기여해 탁월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를 발굴·표창함으로써 사기 진작 및 개발협력 사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부가 수여하는 것이다.

김 교수가 이끄는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단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몽골에서 몽골 간호학과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2017년(2023년 9월 종료 예정)부터 수행해 오고 있다.

김 교수는 이 사업을 통해 몽골 간호계와 협력하여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이를 몽골민족대학교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김 교수는 간호학과 전공교재 및 실습지침서 12종을 몽골어로 발간했고, 이 중 5종이 몽골 국정교과서로 채택돼 몽골 전체 간호교육 현장에서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공적을 몽골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몽골 대통령상 및 교육문화과학체육부장관상, 보건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진희 교수는 "2017년부터 진행된 몽골 간호학과 교육역량 강화사업이 몽골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 성과를 인정받아 이렇게 큰 상을 받게되어 너무 기쁘며, 오늘의 이 영광을 사업단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교육부장관상(대상) 수상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김지미 담당자와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4학년 유승주 학생이 '2022년 장애학생지원센터 우수 콘텐츠 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교육부 주관 '2022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선정돼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운영했다.

김지미 담당자는 장애학생들이 보조기기를 활용해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나아가 취업까지 하게 된 사례를 수기로 만든 '한줄기 빛이 일궈낸 기적'을 출품했으며, 유승주 학생은 보조기기와 관련한 브이로그를 제작했다.

유승주 학생은 "수상작 발표가 되었을 때 믿기지 않았다.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해주신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안내해주신 센터 선생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지미 담당자는 "학생과 함께 좋은 결과를 맺게되어서 기쁘고,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함께해준 학생들이 있어 가능했던 사업이었다"며 "센터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늘 응원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센터장님, 팀장님께 기쁨과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산학협력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상 수상

산학협력단장인 최한철 치과대학 교수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산학협력단(기관)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최한철 교수는 2014~2016년까지 산학협력단부단장직을, 2021년부터 현재까지 산학협력단장직을 맡아 일하면서 산학연 협력에 헌신적으로 기여해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이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학협력단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개최한 '2022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에서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촉진과 우리나라 보건산업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진흥원장상을 받았다.

최한철 산학협력단장은 "앞으로도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역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학협력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재웅 교수
202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의과대학 고재웅 교수가 '2022년 연구 기반 통합관리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고 교수는 조선대학교 병원 안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난 2019년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내 안과 의료기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 교수는 "앞으로도 의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연구 기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동규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안동규 기계공학과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안 교수는 'ICT 기기산업 페스티벌 202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ICT 기기산업 페스티벌 2022'는 ICT 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행사로서 3D프린팅, 스마트컴퓨팅, 컴퓨팅, 네트워크, 공공부문 국산장비 우수사례 등을 발표하는 시간이다.

안 교수는 22년간의 적층제조(3D 프린팅) 분야 연구/기술개발 및 교육/인력양성 결과를 인정받았다.

안 교수는 "22년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적층제조 분야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토목공학과 정명훈 교수
국무총리 표창 수상

정명훈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는 2022년 국가공간정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정 교수는 최근 3년간 SCI급 논문 16건, 국내 KCI급 논문 3건,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29건 등 공간정보 연구분야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통계청 등과 함께 국제회의에 참석·공간정보 분야의 개발상황에 대한 논의와 국내 해양 공간정보 체계에 관한 발표를 하는 등 이 분야의 국제협력에도 기여했다.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이기도 한 정 교수는 호주 멜버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17년부터 조선대학교에 재직하면서 현재는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다.

김종구 교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선임

법사회대학 공공인재법무학과 김종구 교수가 사단법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오는 2024년 1월 31일까지이다.

사단법인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김종구 교수를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창립 이후 국내와 외국 형사법의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형사법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중 국제형법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영미형사법연구회와 한·일형사법연구회를 통한 국제적인 학술교류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조선대 법대 학장을 지낸 김종구 교수는 연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텍사스대와 버클리대 로스쿨에서 수학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도 활동 중인 김 교수는 영미법 형사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영미형사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김종구 교수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인터넷과 디지털 시대에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외국 형사법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법적 현상에 대처하는 입법정책의 마련과 한국 형사법의 선진화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비교형사법학회를 발전시켜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건호 의생명과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이건호 의생명과학과 교수(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장)는 제15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교수는 2013년부터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에서 광주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추적 연구를 진행, 치매발병원인을 발굴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 교수는 치매 증상을 보이기 전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정밀 검사를 실시해 유전체 검사 결과와 인지기능검사, 뇌 자기공명영상(MRI) 자료 등 다차원 자료들을 축적, 장기추적연구를 진행해왔다.

이 교수는 "그동안 지역민, 지자체, 연구단 등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며 "앞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건강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등 치매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도 치매예방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원봉 교수
특허청장 표창 수상

임원봉 의과대학 교수는 2022년 광주 사업화 우수 10대 특허 인증식 및 지역 IP 유공자 포상식에서 특허청장 표창을 받았다.

임 교수는 특허청, 광주광역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지원하는 지식재산 창출 및 경영활성화 기반 국가 산업발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 교수는 조선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연구실의 실험 연구를 통한 'RANKL의 돌연변이체 및 이를 포함하는 골다공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연구결과와 특허를 서울소재 ㈜아크젠바이오사이온스 기업에 이전했다.

이후 호남지방에서 지역 내 지식재산(IP) 가치와 경영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활발한 IP활동을 수행했고 광주지식재산센터의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 중인 광주 의료기기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및 기술 활성화에 이바지해왔다.

2021년에는 지역의료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광역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임원봉 교수는 "'RANKL의 돌연변이체 및 이를 포함하는 골다공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은 부작용이 적고 기존 치료제보다 획기적인 골다공증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기대된다"며 "꾸준한 산학 공동 연구를 통해 지역 의료 산업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성훈 경제학과 교수
제6회 한국제도경제학술상 대상 수상

박성훈 교수가 한국제도·경제학회에서 주최하는 제6회 한국제도경제학술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박성훈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월 2~3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제6회 한국제도·경제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제도경제학술상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제도·경제학회는 학자들의 학문적 의욕을 고취해 나가기 위해 학술연구실적이 탁월한 우수한 연구자를 선정하여 2018년부터 매년 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박 교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지대추구 행위를 게임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현실 상황에 적용하는 데 천착해 여러 흥미로운 통찰을 이끌어낸 공헌을 인정받았다.

박 교수는 "학계에서 명망 높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연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지대추구 이론에 학술적 공헌을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박 교수는 한국산업경제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 호남지회장, 그리고 대한민국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했다.

해외취업연수사업 A등급
100% 취업 달성 성과

조선대학교 해외취업연수사업인 '케이-무브(K-Move)스쿨'이 한국산업인력공단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조선대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해외취업연수사업 평가에서 'K-Move스쿨'이 A등급을 획득했다.

해외취업 핵심사업인 K-Move스쿨은 해외 구직 희망 청년에게 어학과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희망 기업으로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조선대는 2015년부터 K-Move스쿨 연수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2020년부터 3년 연속 평가 A등급을 획득했다. 또 경상계열 '미국취업 국제경영인양성 및 경력개발과정'에 이어 2021년부터 공과계열 '미국취업 국제품질관리 실무자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수료생 100% 취업을 달성하는 등 사업을 성공리에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0년부터 미국 현지의 대외협력외래교수를 임명해 철저한 사후관리와 기업체 검증을 통해 연수생들의 취업처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선대는 올해 K-Move스쿨 연수사업 선정을 위해 교내 원어민 교원들을 활용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현지 기업체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무역관과 협업해 양질의 취업처 제공을 통해 해외취업 거점 대학으로 입지를 굳힐 계획이다.

이계행 취업학생처장은 "학생들이 미국 인턴경험을 통해 귀국 후 성공적으로 국내에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단순히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있는 해외 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K-Move스쿨 연수과정'에 참여한 조선대 학생들

의과대학 검도동아리 조선의검회

전국검도대회서 종합우승

메스를 손에 들어야 할 예비 의사들이 대신 죽도를 들고 솜씨를 발휘했다. 조선대 의과대 검도 동아리 '조선의검회'가 전국의과대학 검도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최근 서울에서 3년 만에 열린 제20회 전국의과대학 검도 대회에서 의과대학 검도동아리 조선의검회가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했다.

한국의사검도회가 주관하고 강원지역 의대검도동아리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의과대학 18개 검도동아리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2021년과 2022년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않았다.

남·여 개인전 및 단체전 등으로 나눠 진행된 올해 대회에서 조선의검회 선수들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한 아쉬움을 떨쳐내려는 검도인들의 열정으로 대회를 뜨겁게 달궜다.

여자개인전에서 좌예은(간호학과3) 선수가 준우승, 김정경(의예과2) 선수가 3위로 입상했고 남자개인전에서는 김동령(의예과1) 선수가 3위를 차지했다.

여자단체전에서는 조선의검회A 김정경(의예과2), 박세란(간호학과2), 좌예은(간호학과3) 선수가 결승전에서 고려대A와 치열한 접전 끝에 1대1로 비겼지만 득실 포인트에서 1포인트 차로 밀려 아쉽게 준우승했다.

조선의검회B 정유진(본1), 김나예(의예과1), 설은수(간호학과3) 선수는 3위를 차지했다.

남자단체전에서는 조선의검회B 이수근(의예과2), 전정재(의예과1), 김동령(의예과1) 선수가 3위로 입상, 올해 신설된 영예의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앞서 조선의검회는 지난 2020년 열린 제19회 전국 의과대학 검도 대회에서 남자 개인전 1위, 남자 단체전 1위를 거둔 경력이 있다.

제20회 전국의과대학 검도대회에서 우승한 조선의검회 학생들

의과대학

제87회 의사국가시험 필기 99% 합격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이 2023년 1월에 시행된 제87회 의사국가시험 '필기' 시험에서 졸업예정 응시자 118명 중 117명이 합격, 99%의 높은 합격률을 달성했다.

의과대학은 2022년 9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시행된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도 98%의 합격률을 보여줬다.

전국 평균 합격률이 94.7%인 것을 보면 이번의 높은 합격률은 의과대학의 우수한 역량을 입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의과대학은 2022년 12월에 시행된 전국 의과대학 '기초의학 종합평가'에서 전국 38개 의과대학 중 10위를 달성했다.

정중화 의과대학 학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의 의과대학은 1966년에 설립되어 올해 개교 57주년이 되는 전통 있는 지방사립 의과대학"이라며 "이번 의사국가시험의 우수한 결과가 의과대학이 배출한 8000여 명의 졸업 동문들에게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과대학이 지역사회와 국가가 요구하는 우수한 의료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충실히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
CSU 대학혁신 성과포럼 성료

지난 한 해 동안 조선대학교가 일군 성과들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조선대학교는 지난 1월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2022 CSU 대학혁신 성과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포럼은 '2022 초월적 혁신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로'라는 주제로 현장 대면행사와 더불어
조선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2022 CSU 대학혁신 성과포럼'

포럼에는 박현주 부총장을 비롯해 권구락 기획조정실장, 지병근 법사회대학장, 이제홍 경상대학장, 김지현 사범대학장, 민정범 치과대학장, 장희진 교육성과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했으며, 광주여자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카톨릭대학교, 송원대학교, 초당대학교, 호남대학교 관계자들까지 합쳐 모두 120여 명이 포럼을 찾았다.

포럼은 최연호 고려대 대학정책연구원장의 대학기관연구에 대한 기조강연으로 시작해 2주기 조선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 소개로 이어졌다. 또 교육과정 질관리 고도화를 위한 학과맞춤형 컨설팅 및 인증제 성과를 비롯해 2개 학과(컴퓨터 공학과, 체육학과)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비교과 프로그램 공유·확산의 성과로서 비교과 플랫폼 구축, 동고동락(同Go同樂)페스티벌 성과 등을 소개하고, 1부에서 2부로 이어지는 휴식시간을 활용해 비교과 프로그램의 성과영상으로서 국토대장정, 장애학생이 제작한 뮤직비디오, 동고동락 페스티벌 영상을 소개했다.

아울러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원 체계와 진로지원 체계를 차례로 소개하면서 학습 부진을 방지하는 프로그램, 진로지도를 위한 멘토링 등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낀 프로그램을 사례로 발표하며 성과를 공유했다.

마지막 종합토론 시간에는 발전계획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연계성, 사업의 성과관리방법, 학과맞춤형 통합컨설팅 및 인증제 실제 운영방법, 체육학과에서 운영한 재능기부(사회적 가치실현) 분야의 성공 비결,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 제고 및 확산 방향 등 다양한 주제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현주 부총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대학의 도전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지난 한 해 동안 열정과 헌신으로 이룬 조선대의 성과를 많은 사람과 공유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CSU
새얼굴

신임 교수 소개

조선대학교는 지난해 9월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을 거쳐 교수 14명을 새롭게 임용했다.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의 앞날을 이끌어 갈 새 얼굴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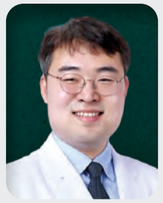
권창규 조교수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사고와 표현

김기범 조교수
미술체육대학 시각디자인학과
영상/멀티미디어 디자인

김민정 조교수
경상대학 경영학부
국내마케팅

김성중 조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소화기내과

김영훈 조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소화기외과(대장항문)



김재호 조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뇌혈관외과

박종관 조교수
글로벌인문대학 유럽언어문화학부
러시아 지역학
(러시아 정치/경제/문화)

여인준 조교수
IT융합대학 전자공학부
반도체 또는 회로 설계 전 분야

이슬비 조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종양혈액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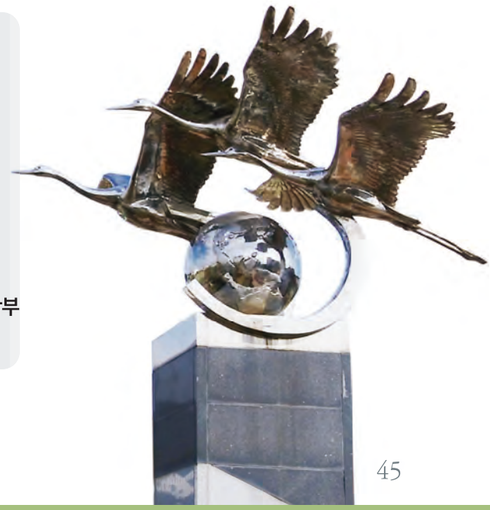
정관호 조교수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수질공학(수질처리)

조원익 조교수
공과대학 용접·접학과학공학과
용접 및 특수가공
(용접생산자동화 및 비파괴검사)

판정훈 조교수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식품학

한희찬 조교수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수리학 및 수자원공학

황월명 조교수
글로벌인문대학 아시아언어문화학부
중국어문화학전공



지역 인재 양성 기여, 미래 가치 창출

김영욱 LX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지난해 조선대학교 이슈 중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단연 우리대학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큐브위성이 누리호에 탑재, 우주로 발사된 것이었다. 김영욱 LX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은 이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며 조선대와 MOU를 체결하고 '조선대 스페이스 첼린지(CSU Space Challenge)' 발전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Q. 김영욱 본부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LX광주전남)의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도시·부동산·지적학 석사, 국방대학교 대학원에서 안보과정을 마치고 청주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LX 본사 디지털지적사업처장, 공간정보연구원 정책실장, 국토정보교육원 원장 직무대리, 제주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현장에서 시작해 한 지역을 아우르는 본부장이 되기까지 LX공사에 열정을 바쳐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CSU Space Challenge 프로젝트에 1000만 원을 기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평소 지역 내 우수 인재 양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 공공기관의 대표자로서 누리호 궤도 안착이라는 쾌거를 듣고 기쁜 마음과 격려를 전달하고 싶었죠. 그러던 중 광주전남 지역 대학교로서는 최초로 누리호에 탑재된 큐브 위성을 개발한 프로젝트 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직접 연락을 하여 기부금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Q. 1호 기부자가 되신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A. 조선대학교는 지역 대학교로서는 최초로 큐브 위성 개발 및 궤도 안착을 성공시켰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한 가운데 조선대학교 스페이스 첼린지 프로젝트의 1호 기부자가 되어 보람이 크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게 되어 공공기관장으로서 기쁜 마음이 가득합니다. 조선대학교 측에서 기부 현판을 만들어 연구실 앞에 게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앞으로도 지역 내 우수 인재 발굴 및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Q. 위성기술개발 등 실무형 우주사업 인력 양성에 특별한 관심이 있으신가요?

A. 당연히 관심이 매우 큽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주 업무인 지적사업 외에도 공간정보사업 개발 및 확장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국토정보플랫폼, 디지털 트윈 플랫폼 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 메타버스플랫폼까지 운용할 예정이며, 향후 이 3가지의 플랫폼을 LX플랫폼으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지상의 도로, 건물, 기타 구조물 등을 디지털 트윈에 옮기고, 지하공간의 각종 시설물들을 한곳으로 모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안전한 UAV, UAM 운용을 위하여 LX드론맵으로 하늘길을 제작하는 업무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업무들이 우주항공 기술과 공간정보 기술이 완벽히 겹치지는 않더라도, 새로운 공간을 개척하고 그 안에서 미래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큰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조선대학교와는 인연이 있으신가요?

A. 조선대학교 졸업생 21명이 현재 LX광주전남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인연이 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LX에서는 인공위성 기반의 위성항법 시스템(GNSS) 정밀 위치정보를 지적측량에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세계 측지계 변환 업무도 하고 있는데, 조선대학교 CSU Space Challenge 프로젝트 팀도 국토교통부 산하 인공위성 사업을 하므로 기술 영역이 일부 겹칩니다. 무엇보다, LX광주전남이 관할하는 지역 내 대학교라는 점에서 조선대학교는

의미가 큽니다. 올해 4월, LX광주전남에 취임하자마자 새로운 비전(디지털 국토정보로 미래가치 창출하는 K-스마트 리전)을 선포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이 되고자 하는 포부를 담은 것입니다. '스마트 리전'으로서, 지역 내 산학연 기관과 기술 교류 및 소통 강화를 통해 서로 발전하고자 조선대와 MOU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인연을 두텁게 쌓아갈 생각입니다.

Q. 이밖에 국토정보공사가 진행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LX광주전남은 사회공헌활동의 자발적인 참여 및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던 최근 3년간은 집합인원 제한으로 인해 사옥 주변 환경 정화 활동에서 그쳤는데 이제는 제한이 크게 완화된 만큼 공사 직원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연계한 장록습지 정화활동,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한 헌혈 행사, 사랑의 빵 나눔 활동, 사랑의 장보기 활동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본사에서 실시하는 LX 자전거 기부 챌린지에 동참했는데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를 위해 공사 임직원이 단체로 뜻을 모아 나주 영산강변 자전거 타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부금에 공사 자체 기부금을 더해 총 1억 원이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됐습니다.

Q. 지역사회에서의 국토정보공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A. 공공기관인 만큼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소통, 더 나아가 협력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재조사 사업 수행 시 지역 전문가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그 지역에 실제 살고 있는 주민을 지역전문가로 선정해 공사와 사업지구 주민 간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원만히 중재하는 것이죠. 사업 외에도 광주시,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선수단 발대식에 참석하여 체육 성금을 기부하는 등 지역 화합의 장에 적극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협력을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고, 소통을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광주전남 지역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 또는 포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A. 한 달 새 LX광주전남지역본부에 부임하며 핵심 비전을 새로이 선포했습니다. 공모 및 심사 평가 과정을 거쳐 숙고 끝에 선정된 '디지털 국토정보로 미래가치 창출하는 K-스마트 리전'이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주요 업무인 지적 측량 및 공간정보 사업은 물론, 공공성을 강화하여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K-스마트리전'은 단순히 스마트 국토정보 허브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LX광주전남은 광주광역시와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협력하고 있으며, 여수산단 위험 화학배관 등 지하시설물 데이터 품질 고도화를 통해 안전한 스마트 그린산단 구현에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국민생활 편익을 위한 주소정보 체계 고도화 및 관련 산업 지원은 물론 지역 내 공간정보 민간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간정보 사업 개척을 본격화하여 공공기관으로서 모두를 위한 공간정보 시장을 만들어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박종호 (주)제이제이홀딩스 대표
조선대에 발전기금 5000만 원 쾌척

㈜제이제이홀딩스(대표 박종호)가 조선대학교 미술체육대학(미술)에 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기금 5000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식은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이 준비한 'CSU아트페스티벌' 전시 현장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으며 민영돈 조선대 총장, 김경종 조선대학교병원장, 신봉석 조선대병원 기획조정실장, 박종호 제이제이홀딩스 대표, 김현철 금호고속 사장, 조윤성 조선대 미술체육대학 부학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호남 예술 발전을 이끌어 온 조선대 미술대학의 발전과 함께 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박 대표는 이날 조선대학교병원에도 5000만 원을 전달했다.

박 대표는 "고향이자 사업을 처음 시작한 광주의 명문 사학인 조선대학교에 기부금을 쾌척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개인적으로 인연이 많은 미대와 훌륭한 교수진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이러한 인재들이 사회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광주 진흥고등학교와 미국 UC Irvine을 졸업했다. 현재 ㈜에스엠건설 부사장, ㈜제이원모터스 사장, ㈜제이제이홀딩스 대표이사로 활동 중이다.

조선대학교 어린이집
조선대에 김치판매 수익금 기부

어린이집 원아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만든 김장김치를 판매한 수익금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최근 조선대학교 어린이집은 조선대로부터 기부금 207만 원을 전달받았다.

기부금은 어린이집 영유아들 150여 명이 지난해 가을부터 텃밭에서 직접 키운 배추와 무로 담근 김장김치를 판매해 모은 금액이다.

아이들의 정성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기부금은 교육, 연구, 장학, 교육환경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어린이집 아이들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부터 어린이집 텃밭에서 농작물을 키워보는 환경사랑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판매, 그 수익금을 기부해 왔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부분의 첫 손질은 교사들이 진행했지만, 간을 맞추고 버무리는 작업은 아이들이 직접 진행했다.

차용심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이 채소밭을 가꾸고 다 자란 배추, 무 등을 직접 수확해 김치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과 노동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으며 아울러 기부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며 "기부금이 좋은 곳에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훈 광주순환도로투자(주) 대표이사
조선대에 발전기금 기탁

이영훈 광주순환도로투자(주)·광주순환(주) 대표이사가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발전을 위해 100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이제홍 경상대학장, 공진성 대외협력처장, 박준영 대외협력부처장, 장용선 경영학부장, 이계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이사는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과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기탁을 결심했다"며 "후배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순환도로투자(주)·광주순환(주)은 2001년 10월 설립되어 고객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순환도로라는 경영이념을 가지고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가고 있다.

발전기금 약정자 (2022.08. ~ 2023. 01.)

단위: 원

성명	소속	약정금액	개인별누계
(사)KBL-대한농구협회		44,000,000	430,327,000
(사)대한배구협회		5,600,000	5,600,000
(재)가헌신도재단		2,500,000	2,500,000
(재)조선대학교치과대학 교육문화재단		54,000,000	2,562,013,000
(주)그룹신도시건축사사무소		5,000,000	5,000,000
(주)누리미디어		1,330,942	5,823,149
(주)세아푸드(임달식)		50,000,000	132,808,000
(주)아리예스코리아		10,000,000	17,500,000
(주)아이에스피건축사무소-이주경		5,000,000	14,000,000
(주)에스크이엔씨		5,000,000	5,000,000
(주)에이스전력		3,000,000	3,000,000
(주)화인씨엔에스_김정우		1,000,000	1,000,000
KT&G 전남본부		4,000,000	18,670,000
강선영	교육혁신원	3,200,000	10,160,000
강진희	총무관리처	2,000,000	13,867,200
강하리	연구처	694,016	3,894,416
광주문화신협		50,000,000	100,000,000
광주순환(주)		5,000,000	5,000,000
권광호	취업학생처	1,200,000	6,711,200

성명	소속	약정금액	개인별누계
권민기	공과대학	1,500,000	15,479,600
김명훈		25,000,000	25,000,000
김보정	미술체육대학	1,200,000	1,200,000
김복희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1,200,000	9,390,800
김선영	사범대학	1,000,000	9,043,600
김승환	미술체육대학	1,000,000	8,826,800
김용재	공과대학	1,990,000	8,092,800
김윤신	의학전문대학원	3,000,000	78,301,200
김지영		100,000	100,000
김진태	공과대학	1,500,000	16,360,000
김태영	공과대학	500,000	1,000,000
김현수	공과대학	1,500,000	16,131,200
김형기	공과대학	2,545,454	9,186,254
대한축구협회		800,000	51,173,600
문덕현	공과대학	500,000	3,460,000
민영돈	총장	5,000,000	108,536,480
박건태 한독기업		1,200,000	2,400,000
박종	의학전문대학원	10,000,000	25,351,200
박종락	공과대학	1,500,000	22,863,600

지역과 함께 100년, 학생과 함께 미래로!

단위: 원

성명	소속	약정금액	개인별누계
성모정형외과 박종환		1,000,000	4,007,272
박주성	사범대학	3,600,000	7,634,000
NH농협은행 박철완		1,000,000	9,000,000
박환석_(주)벗앤벗		6,000,000	6,000,000
배승용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230,000	940,000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		1,000,000	27,500,000
서효민	미술체육대학	1,000,000	3,810,000
세아식품(남경실)		50,000,000	94,000,000
수문사 - 박세원		250,000	7,390,000
안영준	사범대학	100,000	5,263,600
안진영		100,000	100,000
안태정	공과대학	1,500,000	15,363,600
오동열	사범대학	500,000	8,501,600
유승민		2,000,000	2,000,000
이계옥		2,000,000	2,720,000
이수랑	사범대학	1,200,000	2,400,000
광주광역시청 이순형		300,000	4,110,000
이은옥	공과대학	2,400,000	8,740,400
이정선	글로벌인문대학	1,080,000	1,380,000

성명	소속	약정금액	개인별누계
이홍연		300,000	300,000
이희숙	교무처	1,440,000	11,472,400
임병춘	총무관리처	5,000,000	18,514,800
임중길		1,000,000	1,000,000
장숙진	의학전문대학원	5,000,000	19,338,000
장인홍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500,000	9,324,400
정경복	사범대학	300,000	1,340,000
정관호	공과대학	300,000	300,000
정다원		100,000	100,000
정삼규 정도산업건설(주)		1,000,000	3,050,000
정유신	취업학생처	1,080,000	9,064,800
조선대학교어린이집		2,070,000	5,547,000
조선의대사진반-펜타프리즘회원		1,000,000	3,000,000
조철희-(주)한국구조안전연구원		2,000,000	9,000,000
주기남	공과대학	1,500,000	14,993,600
최민호	미술체육대학	5,000,000	14,797,000
최양호	법사회대학	5,000,000	15,701,200
한경우_탐스바닷가재		200,000	200,000
한순미	부설연구소	1,000,000	3,610,000
합계		422,610,412	4,106,284,771

장례식장 부지에 **새병원 건립**

6000억 원 투입 지상 12층 지하 4층 규모, 2028년 완공 목표
AI 기반 미래형 의료 장비 및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스마트병원 구축**

조선대병원(병원장 김경종)이 장례식장 부지를 활용해 새병원 건립에 나선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결의를 통해 기존 병원 건물인 본관, 별관(2·3관)과의 연계성,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해 병원 장례식장과 의대 교수 연구동인 의성관 부지에 새 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1971년에 개원한 조선대병원은 50여 년 동안 2·3관, 외래진료센터 증축 등 크고 작은 개·증축을 진행했다. 하지만 내부 동선이 복잡하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불편이 커지면서 새 병원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새 병원 건립으로 지역민 불편 해소와 더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대병원은 오는 2028년까지 예산 6000억 원을 투입해 3만여㎡ 부지에 지상 12층·지하 4층(건축면적 8000㎡) 규모로 새 병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새병원이 건립되면 병실은 현재 849병상에서 총 1000병상(새병원 700, 2·3관 200, 감염병전문병원 100병상)으로 늘게 되며, 주차장도 현재 1000여 면에서 2000면 이상 규모로 확대된다.

새병원 건립에 따른 장례식장 운영 여부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본관은 새 병원으로 기능을 옮긴 뒤 증축을 통해 연구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새병원은 최첨단 스마트병원을 표방하면서도 세계 최고의 자연친화적인 병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경종 병원장은 "오랜 숙원사업인 새 병원 건립을 통해 50여 년간 이어진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한다"면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의료 장비 및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스마트병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대학교병원 전경

광주광역시와 함께
중동지역 의료관광시장 개척 '박차'

사우디아라비아 환자유치 및 의료교류 활성화
사우디 보건국, 현지 의료기관 등과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 약속
조선대병원, 중동클리닉 활성화, 의료진 연수교육 프로그램 등 강화

조선대병원은 중동지역 의료관광시장을 개척하고 의료 국제 협력을 도모하고자 광주광역시와 함께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를 방문했다. 1972년 공식 수교 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간의 어려 분야에서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우디 2030 국가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100여 명의 의료진도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병원 관계자들이 중동지역 의료관광시작 개척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

조선대병원은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중동 의사연수 협력 의료기관에 선정된 이후 꾸준하게 중동 의료진 연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조선대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중동클리닉을 개소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연방 등 중동국가의 환자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특성화된 진료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사우디 방문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선대병원은 김경종 병원장, 최지윤 대외협력실장(이비인후과 교수) 등 4명을 파견했고, 광주광역시가 파견한 2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광주 의료관광을 홍보하고 다양한 정보 교류를 가졌다.

방문단은 사우디 보건국 및 대한민국 대사관, 카심 대학교 & 대학병원(Qassim University & University Hospital), 술탄 빈 압둘라지즈 휴머니타리안 시티(Sultan Bin Abdulaziz Humanitarian City), 닥터 술라이만 알 하비브 병원(Dr. Sulaiman Al Habib Hospital) 등을 찾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으며, 의사연수, 상호 협력 및 교류 등에 대한 업무협약은 추후 논의해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사우디 카심주에서 주최한 문화 축제 'Ghada Festival'에 참여해 사우디의 문화, 네트워크 및 주요 산업 등을 확인하고 카심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광주 의료관광과 조선대병원 중동클리닉을 홍보했으며, 코트라 리야드 무역관 관계자들을 만나 사우디 의료산업 동향 및 트렌드와 의료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경종 조선대병원장이 닥터 술라이만 알 하비브 병원 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특히, 조선대병원 최지윤 대외협력실장은 카심 대학교 킹파드 병원 교수 및 의사를 대상으로 '기능적 코성형술 및 비밸브협착의 분류 가이드'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했다.

사우디를 방문하고 돌아온 김경종 병원장은 "중동지역 의료관광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의료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광주 의료관광과 조선대병원의 우수성을 알려 더 많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선대병원은 이번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중동지역 의료관광 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중동클리닉 활성화, 비대면 원격의료 협력, 의료진 연수교육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사우디에서 환자를 적극 유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선대병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병원을 모토로 기존 병원의 틀을 벗어나 차별화된 국제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조선대병원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2026년 12월 27일까지이며, 이번 인증으로 조선대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등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임을 재차 인정받았다.

지난해 평가를 실시한 인증 조사단은 병원 전반을 둘러보며 의료의 질, 환자안전, 병동 및 각종 시설, 환자안전과 관련된 규정 등을 자세히 살피고 현장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4주기 인증조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 환자안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것으로서 ▲ 감염관리 시스템 ▲ 환자안전활동 시스템 ▲ 시설 및 환경안전 ▲ 의약품관리 ▲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관리 등 병원 전 부문에 걸쳐 세밀하고 엄격한 평가가 이뤄졌다.

조선대병원은 지난 2010년 처음 획득한 1주기 의료기관 인증부터 이번에 획득한 4주기 인증까지 더욱 강화된 기준의 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지역민에게 더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경종 병원장은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은 모든 교직원이 하나가 되어 준비했기에 가능했다"며 최선을 다해준 교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선대병원은 지역을 넘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으로서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최초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획득

조선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제품 및 사용 인증을 획득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조선대병원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기능성, 상호운용성,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성 등의 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김경종 병원장은 "환자진료의 안정과 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환자정보관리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인증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첨단 3세대 듀얼소스 CT장비 추가 도입

조선대병원은 최근 독일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소마톰 포스(Somatom Force) CT를 추가로 도입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도입한 소마톰 포스는 CT 갠트리 안에 두 개의 X-선 튜브와 검출기를 탑재한 3세대 듀얼소스(Dual Source) 방식이 적용된 최신형 장비이다.

소마톰 포스는 0.3mm의 미세한 병변까지 발견할 수 있는 첨단장비로서 뇌, 심장, 복부 등 모든 영상의학 분야에 적용할 수 있고, 소량의 조영제만으로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 CT장비보다 조영제 사용량이 적어 신장 기능저하 환자에게도 부작용을 최소화해 보다 안전한 검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신속한 검사가 필수적인 응급환자 특성에 맞게 초당 약 74cm의 검사속도가 장점인데, 무의식 상태이거나 호흡제어가 힘들어 CT촬영이 어려웠던 기존 환자뿐만 아니라 비만환자도 상태나 체형에 상관없이 검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빠른 진단이 필요한 응급환자, 소아환자, 신부전환자, 중환자 등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영상의학과 김진웅 과장은 "뇌, 심장, 복부 등 모든 영상의학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최첨단 3세대 듀얼소스 CT 도입으로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면서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신형 3세대 듀얼소스 CT장비

아토피피부염, 의사-환자 소통 원활해야 치료 만족도도 높아져

조선대병원 피부과 **나찬호 교수**

아토피피부염은 유전적인 소인 하에 피부장벽 및 면역반응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이다. '아토피'라는 말이 널리 알려진 것과는 별개로 질환 자체에 대해서는 정작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많은 오해가 있기도 하다.

일례로, 최근 한 아토피피부염 환자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42%의 환자가 증상 발현 후 진단까지 3년 이상이 소요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민간요법 등에 의존하면서 비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으면 진단까지 더욱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발병 초기부터 전문 의료진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이처럼 진단부터 치료까지 여정이 험난한 것은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면서 만성화되는 아토피피부염의 특성에서 오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아토피는 한 번에 완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꾸준하게 치료를 이어가며 환자에게 잘 맞는 치료제를 찾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 구축과 소통이 중요하다. 위의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8%가 의사와 치료 목표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그 중 58%는 의사와 함께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고 응답했다.

진료 현장에서도 의사와 환자가 함께 치료 목표를 소통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경우 환자의 치료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훨씬 높다.

아울러, 아토피로 인한 환자들의 고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토피피부염의 주 증상은 재발성 습진 병변과 가려움증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학교, 직장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밤새 가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

설문조사에서도 84%의 환자들이 가장 중요한 치료 목표로 '가려움증 및 작열감의 빠른 감소'를 들었고, 다음으로 '피부 깨끗해짐 유지', '수면 질 개선' 등을 꼽았다.

이러한 치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위에 언급했듯 피부과 전문의와의 긴밀한 상의와 체계적인 치료가 핵심적이다. 다행인 것은, 아토피피부염에 쓸 수 있는 치료제가 제한적이었던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생물학적제제, JAK 억제제 등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치료 효과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최근 개발된 JAK 억제제는 하루 한번 복용하는 경구제인데, 기존 약제들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가려움증과 피부 병변을 개선해 준다. 이외에도 국내외에서 다양한 치료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의료진으로서는 항상 진료 시간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환자와 소통할 때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과 치료 환경을 개선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난영 교수
제23대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장 취임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제23대 병원장으로 이난영 교수가 취임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난영 병원장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병원장 임기를 수행한다.

이난영 병원장은 "'공감과 소통으로 함께 성장합니다'라는 새로운 슬로건 아래 모든 구성원 한 명 한 명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리더가 될 것이며, 환자와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치과병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원장은 의료시장의 변화를 파악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최신 의료시스템과 장비를 확충하고 선진화된 진료서비스를 제공, 대학병원으로서 본분에 충실하면서 소모적인 홍보성 행사나 사업을 최소화하고 사람 중심의 경영을 추구, 병원의 회계와 회무를 확실히 이해하고 내외적으로 존재하는 병원 경영상의 기회요인과 위험요소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 치과병원 증축사업 등을 진행 해나갈 계획이다.

이난영 병원장은 1993년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조선대학교치과병원에서 소아치과 수련과정을 거쳐 원광대학교 대학원 소아치과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소아치과장,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교육연구부장,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진료부장, 대한소아치과학회 이사, 대한소아치과학회 홍보이사, 대한소아치과학회 수련고시이사, 대한소아치과학회 총무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소아치과 전문의로서 대한소아치과학회 부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 부회장 등의 역할을 맡아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치과병원, 보건복지부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해 11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조사위원이 직접 치과병원을 방문해 3개 영역, 12장, 6개 범주, 268개 조사항목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의료서비스 및 의료기관 운영 실태 항목 등에서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그 결과 인증을 획득했으며 유효기간은 4년(2023년 1월 18일 ~ 2027년 1월 17일)이다.

3주기 인증평가는 2주기에 비해 인증 필수항목이 34개에서 55개로 확대됐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환자안전 관련 사회적 이슈가 반영돼 감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필수항목으로 신설되는 등 감염관리 항목이 강화됐다.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은 보건복지부 2주기 인증 후 매년 중간자체조사 및 중간현장조사를 실시해 환자안전 및 병원의료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3주기 인증을 준비하면서 전 직원 대상으로 감염관리 교육, 화재 발생 시 대응 훈련 및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등 필수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3주기 조사항목 기준에 맞춰 규정 및 지침을 모두 점검하고 제·개정 작업을 진행하는 등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해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이난영 병원장은 "지난 2014년, 2018년에 이어 3회 연속 치과병원 인증 획득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한 교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방문하는 모든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더 나은 진료환경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3주기 의료기관 인증패 앞에서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참여 안내

기금을 보내주신 분께는

- 500만 원 이상 출연하신 분들의 성함을 우리 대학교 명예의 전당(본관 중앙 현관)에 새겨 그 뜻을 기립니다.
- 우리 대학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소개합니다.
- 우리 대학에서 부여하는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기금을 출연하신 분은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조선대학교에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액 100%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법정기부금의 세액 공제는 기부금을 납부한 해로부터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부(개인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 2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액의 15%,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소득세법 제34조)

개인기부(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

- 개인사업자가 기부액을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과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 단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법인세법 제24조)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 조선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약정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송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약정하신 금액은 일시 납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자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 현물, 주식, 부동산 등의 다양한 형태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금 납부 방법

- 전화, 우편, 메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62-230-6234 / fund@chosun.ac.kr)
- 조선대학교 홍보팀에 방문하여 직접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본관 2층)
- 아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신 경우, 조선대학교 홍보팀으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은행 004-127-007929 (예금주: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지역과 함께 100년, 학생과 함께 미래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길 146 _ www.chosun.ac.kr